

아내폭행 원인에 대한 통합적 모델 검증

김지영¹⁾ · 최상진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아내폭행은 여성이나 자녀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문제를 야기하고 가족해체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그간 아내폭행에 관해서는 남편 개인의 특성이나 피해자인 아내의 특성, 경제적 스트레스 등의 원인들이 단편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한 두가지의 변인만으로 아내폭행 현상을 설명하는 것은 부족하다. 본 연구는 아내폭행이 남편의 개인적 특성, 부부관계, 상황적 특성, 문화, 심리적 특성 등의 다양한 차원에 의해 유발된다고 보고, 그러한 각각의 차원에서 어떤 요인들이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아내폭행으로 결과되는지를 알아보고자 경로를 가정하고 실증연구를 실시, 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위해 가정된 연구모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편의 자존감, 남편의 남녀평등의식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둘째, 남편의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 남편의 공격성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직접적으로 남편의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셋째, 남편의 공격성은 아내폭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원가족 폭력경험은 아내폭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연구모델과 스트레스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가 제거된 연구경쟁모델을 비교했다. 연구결과, 경쟁모델보다 연구모델이 보다 적합한 모델로 채택되었다. 즉 남편 자신의 성격적 특성과 스트레스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부관계의 악화가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시켜 아내폭행을 야기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은 직접적으로 아내폭행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아내폭행, 자존감, 공격성, 남녀평등의식, 스트레스, 원가족 폭력경험, 의사소통

Wallace와 Seymour(2001)에 의하면 한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신체적인 해를 입히거나, 죽음을 초래할 수 있는 폭행, 구타를 가하는 것과, 자원에 대한 접근과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외부세계와 고립시킴으로써 육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를 일삼는 것을 통틀어 가정폭력 혹은 가족폭력이라고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가족폭력 중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가하는 폭력을 아내구타, 아내학대, 아내폭행 등의 용어들로 일컫는다.

김재엽(1998)의 연구에 의하면, 전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남녀 1,52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한국가정의 부부폭력 발생율은 31.4%이며, 이중 남편에 의한 아내폭행은 27.9%이고 아내에 의한 남편폭행은 15.8%이지만 상호폭력을 제외했을 때는 아내폭행율이 15.6%, 남편폭행율이 3.5%로 남편에 의한 아내의 폭행율이 아내에 의한 남편폭행율보다 5배이상 높게 나타난다. 또한 Straus(1979)에 의해 심각한 폭행으로 분류되는 '상대를 발로 차거나 사정없이 마구 때리거나, 흉기로 위협하는 폭행'의 경우에는 아내폭행율이 남편에 비해서 5배 이상 높게 나타난다. 혹자는 부부싸움에서 폭행의 상호성을 주장하지만, 여성이 폭력을 행

1) 김지영, 중앙대학교 심리학과, 156-756 서울시 동작구 흑석동 221, email: 71jykim@hanmail.net

사하는 경우, 남성의 폭력이나 위협에 대한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고 그 강도도 미약한 반면, 남성의 경우는 여성을 지배하고 통제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고, 그 결과도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Hamberger, Lohr, Bonge & Tolin, 1997).

이러한 아내폭행이 폭행의 피해자나 가족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우선 직접적 피해자인 여성들의 경우, 우울감, 무력감, 고독 등의 심리적 고통(Zlotnick, Kohn, Peterson, & Pearlstein, 1998)과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간접적으로는 폭행을 목격하는 자녀들의 우울감,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야기하며(Haj-Yahia, 2001), 부부간 폭력이 아동학대로 이어지기도 한다(Gil, 1971).

그간의 심리학적 연구들은 남편들의 반사회적 경향성 등의 성격특질이나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같은 관계상의 문제, 학대당하는 여성의 특질,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사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아내폭행의 원인을 다루었다. 그러나 이러한 각각의 설명은 나름대로의 한계를 가지는데 예를 들어 가해남편들이 정신병적 경향성을 가졌다는 주장들을 보면 다수의 가해 남편들이 실제로 아무런 정신적 문제를 가지지 않은 정상적인 사람들이며, 아내를 상습적으로 구타하는 사람들의 11% 정도만이 전형적인 정신병적 증세를 가지므로 그들의 정신병적 경향성이 과일반화 되어서는 안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ondolf & White, 2001). 이러한 한계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지적되었던 바, 실적을 하거나 경제적으로 궁핍한 모든 가장이 아내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며, 모든 남편이 부부간에 갈등을 폭력으로 해결하지는 않는다. 술만 마시면 아내를 때리는 남성이 왜 다른 사람은 때리지 않고 자신의 아내만을 폭행하는가? 가정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남편이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는 행동이 결과되기까지는 여러 차원의 다양한 원인이 서로 얽힌, 복잡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게 되는 남성의 행위에 대한 설명은 어느 하나의 관점에서만 설명될 수 없는, 미시-거시적, 개인-관계적 차원의 설명이 모두 요구되는 문제인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들이 아내폭행 현상을 설명함에 있어 단일한 차원에서 접근함으로써, 아내폭행에 관해 정확하고 현실적인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 이러한 기존연구가 가지는 문제를 보완하고자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아내폭행의 원인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본고의 작업은 또한 부부관계의 초기 연구에서부터 제기된 당사자의 성격 특질을 부부관계의 기저로 보는 시각과 사회심리학자들에 의해 제기된 상호작용의 특질을 부부관계의 기저로 보는 두 가지 시각을 동시에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즉 상황과 관계, 개인의 성격특질이 역동적으로 작동하면서 아내폭행이 일어날 것이라는 관점에서 출발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말하는 아내폭행의 개념은 성적폭행을 제외한 육체적 폭행으로 정의된다. 아내구타나 아내학대라는 말도 아내폭행과 유사하게 쓰이기도 하지만 구타의 경우는 심각한 폭행의 의미가 강하므로(Rouse, 1989), 아내폭행의 의미가 축소되며, 학대의 경우 심리적, 언어적 학대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정희진, 2001)가 강하므로, 아내에 대한 성적 폭행을 제외한 육체적 폭행에 초점을 맞춘 본 논문에서는 아내폭행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고 보고 아내폭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러한 다차원적 접근을 위해 먼저, 남편의 낮은 남녀평등의식을 가정할 수 있다. 많은 폭행남편들이 성역할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다거나, 결혼에 대해 보수적이고, 남녀평등의식이 낮다는 연구결과는 페미니스트들 뿐 아니라, 심리학자들 사이에서도 아내폭행의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된 부분이었다(Rosenbaum & O'Leary, 1981; Whitehurst, 1974 등). 개인차가 있겠지만 한국사회에서 성장한 남성들에게 남녀의 역할에 편견이나, 성별 평등의식은 내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녀의 역할에 대해 전통적인 태도를 지니고, 부부관계에 대한 평등의식이 낮은 남성들일수록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적이지 못한 태도를 보일 때 불만이 클 수 있고, 폭력으로

아내를 제압하고자 할 수 있다. 이에 남녀평등의식은 아내폭행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추측된다.

다음으로 폭력 남편들의 높은 공격성과 낮은 자존감이 있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이성교제에서 상대의 거절에 민감하고, 상대의 부정적인 반응에 쉽게 적대적이 된다고 한다(Bellavia & Murray, 2003). 따라서 낮은 자존감은 아내폭행을 설명하는 중요한 변인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공격성은 인간의 폭력이나 범죄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변인이다(Bartol, 2002). 이러한 공격성은 성격특질로 측정될 수 있는데, 성격특질로서의 공격성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특정한 상황과 특정 대상에 따라 활성화되는 양상을 보인다고 한다(Shoda, Mischel, Wright, 1994). 일반적으로 부부관계에서 폭행을 일삼는 사람들은 심리적, 언어적 공격성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있다(Gondolf, 1988). 따라서 공격성은 폭행 남편 안에 내재되어 있다가 다른 여타 변인들에 의해 활성화되면서 아내폭행을 야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내폭행의 부부관계적 측면에서는 의사소통이 중요시되었는데, 의사소통수준이 낮을수록 아내에 대한 언어적, 신체적 학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 전형미, 이현혜, 1992).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개인의 성격적 변인이나 상황 등에 의해 좌우되면서 부부관계의 질을 변화시키고, 아내폭행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내폭행의 상황적인 변인으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높은 실업과 낮은 수입 등의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내폭행과 높은 관련성을 지닌다고 한다(Jasinski, Asdigian, Kantor, 1997).

마지막으로 개인역사적 측면에서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아내폭행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있었다. 부모의 폭력행동은 아동의 공격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노치영, 박성연, 1992), 폭력의 세대간 전승에 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많은 연구들은 원가족에서 부모간의 폭력을 관찰한 경험은 자신의 배우자 폭행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전춘애, 1989; Hotaling & Sugarman, 1986 등).

결국 본 연구는 아내폭행이 남편의 성격특성, 남편의 성불평등의식, 남편의 개인역사, 상황특성, 부부관계적 특성 차원이 상호작용하여 나타난다고 보고, 가해자인 남편의 낮은 자존감과 높은 공격성, 낮은 남녀평등의식,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 부부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 스트레스라는 여섯 가지 변인들을 가정, 이러한 변인들이 서로간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경로를 통해 아내폭행이 유발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의식: 남녀평등의식

가족과 여성의 역할에 관해 전통적인 태도를 가진 남성은 아내와의 갈등상황에서 쉽게 공격적인 행동을 나타낸다고 한다(Goldstein, 1986). 미국에 사는 중국, 한국, 베트남, 캄보디아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해자의 24%에서 36%가 아내가 바람을 피우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가사일을 거부하는 경우,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응답했다(Yoshioka, Dinola & Ullah, 2001). 일반적으로 남성은 여성보다 공격성이 높는데, 그 이유는 사회화의 과정에서 공격적이고 지배적이고, 자기주장적인 성향이 남성다운 것으로 지되기 때문이라고 한다(Broverman, Vogel, Broverman, Clarkson, & Rosenkrantz, 1972). 따라서 가정과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의 역할이나,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에 대한 고정화된 사고를 강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남

성일수록 부부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경우, 대화로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남편 얘기는 “원인은 너다. 니가 말대꾸하고 답답하게 얘기한다. 니가 맞을 짓을 해놓고 때리게끔 하지 않았느냐. 너는 말을 살살 끊는다”는 겁니다. 식구들 얘기도 너도 잘못했고, 최서방도 잘못했다. 양자가 다 문제래요(35세, 주부, 고졸, 여성)’. (정희진, 2001)

한국사회는 유교적 전통이 남아있으므로 남성 뿐 아니라 여성들 사이에서도 남성과 여성에 관한 불평등 의식은 강하게 공유되고 있다. 위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남편에게 말대꾸를 하다가 맞은 여성에게 주변의 가족들은 때린 사람이나 맞은 사람이나 같이 잘못했다고 대응한다. 남편은 부부간의 대화에서 아내가 자신에게 말대꾸하고 답답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폭행의 이유가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아내의 반박하는 말을 대화 아니라, 남편의 권위에 대한 일종의 도전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남편이나 주위의 가족들의 의식속에서 부부는 평등한 관계가 아니라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는 수직적 관계이며, 무조건 동조하지 않는 아내와는 원만한 대화가 불가능하고, 경우에 따라서 남편이 폭행을 행사하는 것이 큰 잘못으로 인식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남녀평등의식이 부족한 남성들은 아내와 평등하고 원만한 대화를 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편들의 낮은 남녀평등의식은 아내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어 아내폭행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요한 변인임을 추론할 수 있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변인들: 자아존중감과 공격성

자존감이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인 태도를 말한다(Rosenberg, Schooler, Schoenbach, & Rosenberg, 1995). 자존감은 아내폭행의 성격적 변인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졌다(Everett, 1988). 낮은 자존감은 사람들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하게끔 만든다(Sigall & Gould, 1977). Goldstein과 Rosenbaum(1985)의 연구에서도 낮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은 아내가 자신에게 대를 때, 이것을 자신에 대한 위협으로 지각한다고 한다. 국내에서도 낮은 자존감이 배우자에 대한 언어적 학대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정옥, 전형미 이현혜, 1992).

또한 긍정적인 자기 가치감을 지닌 사람은 아내폭행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데, 이러한 사실은 서구에 비해 남성우위적 문화를 지닌 이슬람 문화권에서 행한 연구에서도 증명되었다. 이슬람 남자들이 여성들에 비해 보다 아내폭행에 대해서 허용적인 입장이지만, 성별에 상관없이 높은 자아존중감(self-esteem)을 가진 사람들은 아내폭행에 대해 반대하는 태도가 강했다(Ali & Toner, 2001). 따라서 자존감은 아내폭행에 영향을 주는 강력한 성격적 변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사회적 기술과 자존감 간에는 강한 관련성이 있다고 한다(Riggio, Throckmorton, & Depaola, 1990). 즉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사회적 기술이 취약해서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 Kinney와 Segrin(1998)의 연구에서는 자존감이 공격적인 언어에 관한 피드백의 민감성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함으로써, 자기(self)에 대한 부정인 정보를 수정하거나 차단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자존감의

역할 때문에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분노가 감소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자존감은 부정적인 정보를 차단하는 구실을 함으로써, 높은 자존감은 의사소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낮은 자존감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짐작된다. 이는 남편의 자존감이 부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가정케 한다

아내를 폭행하는 남편의 성격적 변인으로 중요한 다른 하나는 공격성이다. 아내폭행을 일삼는 남편들은 일상생활에서도 심리적, 언어적, 육체적 공격성이 높은 사람들이라고 한다(Gondolf, 1988). 즉 자신의 배우자에게 공격적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공격성 수준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이다 (Maiuro, Vitaliano, & Cahn, 1987; Stets & Pirog-Good, 1990 등). 그런데 공격성은 특정한 상황에 의해 촉발되는 측면이 강하다. 성격이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관점에서(Mischel & Shoda, 1998), 특히 공격성은 특정한 관계와 상황에 따라서 활성화되는 측면이 강한 성격특질이다. Shoda와 그의 동료들(Shoda, Mischel, Wright, 1994)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공격성격이 특정 상황과 관계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게 나타나면서 동시에 일정한 패턴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통해, 공격성격의 역동성을 증명했다. Stemmmer(1997)의 연구에서도 피험자에게 자극을 가했을 때 분노가 유발되는 과정에서 공격성이 특정한 조건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이 입증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어떤 개인의 공격성은 특정 상황과 관여되는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되면서 분노를 표현하거나, 공격적 행동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Bushaman(1995)은 이러한 공격성격이 자극상황과 공격 행동 사이에서의 매개변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실험을 통해 증명했다. 따라서 남편의 공격성은 아내와의 관계속에서 여타의 변인들에 의해 활성화되어 아내폭행을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된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부부관계의 질(質): 의사소통

부부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의 정도는 곧 부부관계의 질을 나타낸다. 대인간 의사소통은 대인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이고 비언어적인 모든 행위가 포함되고, 나아가 지각 가능한 모든 행위들은 본질적으로 의사소통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Littlejohn, 1996). 따라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잘된다는 것은 단순히 의사표현의 문제만이 아니라 평소 부부가 얼마나 원활한 상호작용을 하는가, 부부간에 얼마나 신뢰하고 친밀감을 느끼는가와 같은 부부관계의 질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부부간에 발생하는 폭력은 부부 상호간의 부정적 의사소통에 의해 배태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Infante, Chandler, & Rudd, 1989).

Vivian과 O'Leary(1987)는 아내폭행이 발생하는 부부들을 조사한 결과, 그들은 부부간의 문제가 있을 때,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표출하거나, 상대를 비난하는 경우가 많고, 반대로 상대에 동조하는 비율은 낮다고 한다(Rohling, Smutzler, Vivian, 1994에서 재인용). 실험실에서 부부간의 상호작용을 관찰한 연구에서도 아내폭행이 일어나는 부부들은 서로간에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악순환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아내폭행이 일어나지 않는 부부들은 부정적 상호작용에서 적대감이 고조될 때, 재빨리 그러한 순환에서 빠져나오는 모습을 보여주었다(Cordova, Jacobson, Gottman, 1993). Bienvenu(1970)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효율적인 것과 비효율적인 것으로 구분하면서 효율적인 의사소통 요소로 주의해서 듣는 태도, 상대를 이해하는 능력, 부드러운 목소리 억양, 자신의 높은 표현능력을 들었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으로 잔소리, 예의바르지 못한 태도, 정직하지 못한 점 등을 들었다. 이러한 비효

울적인 의사소통은 부부가 적대감을 고조하고, 폭력을 야기하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주고받는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부부간에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할수록 아내폭행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부부간의 상호작용은 또한 남편과 아내, 각각의 특성과 상황에 의해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이 추론 가능하다.

한편 'road rage'에 관해 연구한 Parkinson(2001)은 의사소통이 어떻게 인간의 분노를 자극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꽉 막힌 차로에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화를 내는 것은 낯선 사람들끼리, 도로의 소음이나 먼 거리 때문에, 서로간에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거나 파악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꼼짝할 수 없이 갇힌 도로에서, 다른 차안의 사람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상대의 비악의적 생각을 파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공격성이 활성화되면서, 타인에게 적대적인 행동을 하게된다고 할 수 있다(Parkinson, 2001). 국내의 연구에서도 긍정적인 의사소통 방식이 결혼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정은, 이영호 2000).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져 부부관계의 질이 낮은 남편의 경우는 아내에 대한 공격성이 활성화되어 아내폭행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요인: 스트레스

다수의 선행연구들이 스트레스와 폭력이 가지는 높은 관련성을 증명하고 있다(박경규, 1994; Stith & Farley, 1993 등). 아내폭행에 관해 연구하는 학자들도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하는 남성들이 보다 폭력적임을 주장해왔다. 김재엽(1998)의 연구에 의하면 성인 남성들이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 항목은 직업, 경제적인 것이며(67.8%), 다음으로는 건강에 관한 스트레스(62.6%)였다. 스트레스의 수준에 따라 상, 중, 하의 집단으로 나누어 부부폭력율을 조사한 결과, 上인 집단의 부부폭력율은 31.6%로서, 下인 집단인 12.7%보다 약 2배반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빈곤가구들에서 아내폭행이 흔하다는 것은 여러 보고들에서도 나타나는데(옥선화, 1992; Straus & Gelles, 1990 등), 이는 경제적 빈곤으로 인해서 유발된 스트레스는 많은 반면 이를 관리할 사회심리적 대처자원은 적기 때문이다(옥선화, 정민자, 1984). 스트레스와 폭력간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다룬 연구들은 스트레스에 의해 야기된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 사건의 횟수가 폭력과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Barnett & Fagan, 1993; Stith & Farley, 1993 등), 후자에 속하는 학자들인 Cascardi와 Vivian(1995)은 폭력과 관련된 부부문제로 상담소를 찾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서 그들의 대다수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하기 이전에 재정문제나 직장문제, 부부관계나 자녀관계, 건강상의 문제로 인해 일어난 스트레스 사건에 노출되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스트레스 이론에 따르면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이에 대한 인지적 평가 및 사회적 지원, 성격 그리고 생리적 조건 등이 스트레스 지각에 중요한 매개변인의 역할을 한다(Lazarus & Folkman, 1984). Straus(1980)와 Farrington(1986)의 연구들도 스트레스를 폭력을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보다는 각성의 정도나 대처방식 등의 다른 요인들이 스트레스가 폭력을 야기하는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증명했다. 때문에 스트레스를 겪는 모든 남성들이 아내를 구타하지는 않는 것이다. Shoda와 그의 동료들(Shoda, Mischel, Wright, 1994)은 아동들의 공격성이 상황이나 관계되는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또한 스트레스는 적대감이나 우울감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유발함으로써 부부관계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는 부부관계나 공격성이라는 변인들을 통해 아내폭행에 영향을 줄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역사적 변인: 원가족 폭력경험

아내에게 폭행을 가하는 남편들은 원가족에서의 육체적, 정신적 학대 및 폭행을 당한 경험이 있거나, 부모간에 행사하는 폭력을 관찰하면서 성장한 사람들인 경우가 많다(전춘애, 1989; Hotelling & Sugarman, 1986; Kalmuss, 1984 등). 한국에서도 가정폭력의 세대간 전이를 증명한 많은 연구들이 있다(김갑숙, 1991; 박경규, 1994 등).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종합하면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관찰하면서 성장한 남성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폭력적 가정에게 성장한 남성들이 반드시 배우자에게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라는 상반되는 연구결과들도 있지만(Tontodonato & Crew, 1992; MacEwen & Barling, 1988 등), 아직까지 가정에서 학습되는 폭력에 관해서 많은 연구결과들은 그 영향력을 인정하고 있다. Huesmann과 그의 동료들(Huesmann, Eron, Lefwitz & Walder, 1984)은 아동들이 부모간의 육체적 폭력 뿐 아니라, 공격적인 언행을 관찰하거나, 나아가 폭력을 목인 또는 허용하는 문화속에서 성장하면서 공격성이 증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Stith 등(Stith, Rosen, Middleton, Busch, Lundeborg, & Carlton, 2000)이 행한 메타분석의 결과 원가족 폭력의 결과는 성별간의 차이를 드러내는데, 폭력적인 가정에서 성장한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가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았고, 여성들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남성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아마도 아동들이 주로 같은 성을 가진 부모를 모델링한다는 측면에서 설명 가능한 결과일 것이다. 즉 소년들은 아버지를 보면서 가해자의 역할을 배우고 소녀들은 어머니를 보면서 피해자의 역할을 학습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어린시절 부모로부터 받은 직접적인 신체적 폭력보다는 오히려 아버지가 어머니에게 행하는 폭력을 관찰한 경험이 성장 후 결혼 관계에서 아내에 대한 신체적, 상징적, 그리고 성적 폭력의 가능성을 훨씬 더 높이고 있다고 보고된다(박경규, 1994; Dibble & Straus, 1990 등). 따라서 원가족에서 부부간의 폭력을 학습하면서 성장한 남성들은 자신의 배우자에게도 폭력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상으로 아내폭행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통해 아내폭행을 유발하는 변인들에 관해 살펴보았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남편의 성격적 특징으로는 낮은 자존감과 높은 공격성을 들 수 있었고, 남편의 의식에서는 낮은 남녀평등의식이 있었다. 남편의 개인역사적 특성에서는 원가족에서 아버지의 어머니에 대한 폭력관찰 경험이, 상황적 특성에서는 높은 스트레스 상황이, 부부관계적 특성에서는 부부간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 아내폭행의 중요한 변인이었다. 이러한 변인들의 관계성을 살펴보면, 남편의 낮은 자존감, 그리고 높은 스트레스 상황과 남편의 낮은 남녀평등의식이 부부간에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야기한다. 부부간에 의사소통이 비효율적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부부간에 상호작용이 부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Cordova와 그의 동료들의 연구에서도 밝혀졌듯이 부부관계가 적대감을 고조시키는 악순환에 빠져들음을 의미한다(Cordova 외, 1993). 또한 공격성은 상황과 대상에 따라 선택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성격특질로 공격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ushman, 1995 등). 따라서 자신의 개인적 특성과 아내의 반응특성, 높은 스트레스에 의해 아내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남편은 아내에게 폭행을 저지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심각한 폭행에서 가벼운 폭행에 이르기까지 아내를 폭행한 경험이 있는 남편들과 한번도 아내를 폭행한 적이 없는 남편들을 대상으로 집단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살

펴보고, 최종적으로 폭행을 유발시키는 관계적, 성격적, 상황적, 개인 역사적 변인들간의 관계성을 경로모형을 통해 검증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및 가설: 아내폭행에 관련된 상황적, 성격적, 관계적, 개인 역사적 변인간의 경로모형을 설정한다. 모델설정을 위해 다음과 같은 가설들을 제안한다.

1) 남녀평등 의식은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내폭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가정과 여성의 역할에 관해 전통적인 의식이 강한 남성들일수록 부부간에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Goldstein, 1986). 다시 말해, 보다 남녀평등적인 의식을 가진 남성은 아내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녀평등의식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공격성을 통해 아내폭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2) 자존감은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내폭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낮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배우자에 대해 언어적 학대를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김정옥, 전형미, 이현혜, 1992). 또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높은 자존감을 지닌 사람들에 비해 상대방이 하는 불쾌하고 거슬리는 행동의 원인이 자기와 관련되었다고 생각하는, 자기-참조적 생각 때문에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안미영, 1998). 이러한 연구들을 볼 때 남편의 자존감은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공격성을 통해 아내폭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3)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내폭행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직장에서 받는 업무 스트레스는 대인관계에서 긴장과 적대감을 야기한다고 보고되는 바(이종목, 이은희, 1997), 가정이나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보다 많이 지각하는 남편들은 아내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에 부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공격성을 활성화시켜 아내폭행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된다.

4) 스트레스는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내폭행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공격성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상황에 따라 변화되면서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격특질이라는 것이 검증되었다(Stemmler, 1997; Bushaman, 1995 등). 따라서 높은 스트레스 상황은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시켜 아내폭행에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5)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공격성을 통해 간접적으로 아내폭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부부관계에서 아내의 비난이나 거절에 대해 자신의 감정을 투사함으로써, 아내와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는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 공격적이고, 결혼불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Schweinle, Ickes, & Bernstein, 2002). 부부간에 원만하지 못한 의사소통과 적대적인 상호작용은 아내라는 특정 대상에 대한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 이와 반대로 부부간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남편의 공격성을 통해 아내 폭행에 부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6) 공격성은 아내폭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공격성은 공격적인 행동과 가장 직접적이면서 강력한 연관성을 가지는 변인이다(Bartol, 2002). 이러한 공격성을 개인마다에 내재된 성격으로 보고 측정한 것이 공격적 성격이다. 공격성은 안정적이라기보다는 상황이나 대상에 의해 활성화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Mischel & Shoda, 1998) 또한 Bushaman(1995)은 공격성이 상황과 행동 사이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검증했다. 따라서 공격성은 다른 아내폭행 변인들의 직, 간접적 영향을 받아, 공격적인 행동에 직접적이고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7) 원가족에서 폭행관찰의 경험은 아내폭행에 직접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국내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폭력에 대한 태도나 과거 부모로부터의 폭력경험이 청소년 폭력을 유발하는 주요한 변인이었다(김재엽, 최선희, 1998). Kalmuss(1984)의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하거나, 부모간의 폭력을 관찰한 사람들은 남녀 모두 자신의 부부관계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따라서 원가족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관찰한 경험이 많을수록 남성들은 자신의 배우자를 폭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바탕으로 아래 그림 2와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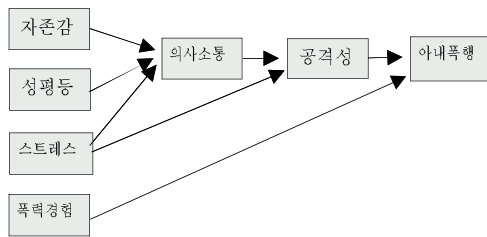


그림 2. 연구가정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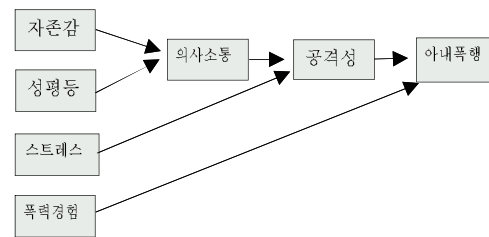


그림 3. 경쟁모델

그림 3은 그림 2의 연구모델이 가지는 우월성을 평가하기 위해 위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경쟁모델이다. 경쟁모델은 연구모델의 안긴모델(nested model)로 두 모델은 서로 위계적 관계를 가지며, 비교를 통해 둘 중에 보다 우월한 모델이 채택되게 된다(박광배, 2000). 그림 2의 연구모델은 그림 3의 경쟁모델에 비해 스트레스가 의사소통으로 가는 하나의 경로가 더 추가되었다. 스트레스는 아내폭행을 다룬 많은 연구들에서 중요한 주제였다. Cano와 Vivian(2001)은 스트레스와 아내폭행간의 관련성을 다룬 메타연구에서 남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는 분명히 아내폭행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스트레스와 아내폭행을 매개하는 변인들에 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변인들에서 부부관계의 만족이나 부부간의 불화는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발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Strauss, 1990; Julian & McKenry, 1993 등). 그러므로 두 모델을 비교하여 경쟁모델이 채택된다면 스트레스는 남편의 공격성격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어 아내폭행에 영향을 주지만, 연구모델이 채택된다면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남편의 공격성격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아내폭행에 영향을 준다는 추가 경로도 입증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아내폭행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보다 적합한 다차원적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

방 법

조사대상

서울시내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남성들, 야간대학에 다니는 기혼남성들과 서울시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급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아버지에게 설문지를 완성하도록 부탁해서 총 208명의 기혼남성들에게서 자료를 얻었다. 설문지는 배부된 후 약 3주 동안에 걸쳐 회수되었다.

도구 및 절차

아내폭행을 측정하기 위해 Straus(1979)의 갈등척략 척도(Conflict Tactics Scale)를 김재엽과 이서원이 1998년 연구에서 한국의 실정에 맞게 번안 수정하여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Straus의 갈등척략척도는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이성적 행동, 언어적 공격, 폭력행동의 3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표준화 과정에서 폭력행동을 측정하는 문항은 원래 9개였으나 총이나 칼로 위협하거나 사용한 경험을 질문하는 2문항은 한 문항

으로 통합되었고, 상대에게 직접적으로 신체적 폭력을 가하지 않는 ‘물건을 부수거나, 발로 걷어찼다’는 문항을 제외하여 총 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아내에게 물건 던지기, 세게 밀치기, 뺨 때리기의 3문항은 경미한 폭행으로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리기, 물건(책대,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리기, 사정없이 마구 때리기, 칼이나 흉기로 위협 또는 다치게 하기의 4문항은 심각한 폭행으로 분류된다(김재엽, 이서원, 1998). 신뢰도는 .86(Cronbach α =.86)으로 나타났다.

자존감 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검사를 전병재(1974)가 번안한 것으로 사용하였다. 긍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과 부정적 자아존중감 5문항 등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래는 리커트형 4점 척도지만, 5점 척도로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부정적인 문항들은 반대로 처리한다. 점수범위는 10점에서 50점까지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 신뢰도는 .81(Cronbach α =.81)로 나타났다.

공격성 척도는 Buss와 Perry(1992)의 The aggression Questionnaire를 이성우(2000)가 번안한 것으로 총 29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신체적 공격성(1, 4, 8, 13, 15, 18, 22, 25, 27), 언어적 공격성(6, 10, 14, 16, 19), 분노(3, 9, 12, 21, 24, 26, 28), 적대감(2, 5, 7, 11, 17, 20, 23, 29)의 하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리커트형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공격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는 .93(Cronbach α =.93)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척도(김양희, 정경아, 2000)는 가정생활, 교육생활, 직업생활, 사회문화생활에서의 평등의식을 측정하는 것으로 모두 20문항씩 총 8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점(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4점)의 리커트형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의식이 높다. 80문항 중에 49개의 문항은 반대로 처리해야 하며, 전체 척도 점수는 80점에서 320점이다. 신뢰도는 .93(Cronbach α =.93)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척도(이정은, 이영호, 2000)는 Kanner, Coyne, Schaefer, Lazarus(1981)의 The Hassles Scale을 이 번안, 수정한 것이다. 원 척도의 문항은 총 114 문항이나, 표준화 과정에서 기혼의 남녀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평가하게 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문항은 추가하고, 부적절하다고 생각되는 문항은 삭제하여 총 71 문항의 질문지를 완성하였다. 또한 원 척도 상에서는 스트레스를 겪는 빈도만 3점 척도상에 평정하도록 하였으나, 표준화 과정에서는 스트레스를 겪는 빈도와 지각되는 심각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문항 당 빈도는 3점 척도로, 심각성은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전체점수 범위는 0점에서 426점이고, 신뢰도는 .95(Cronbach α =.95)로 나타났다.

의사소통 효율성 척도는 Bienvenu(1970)의 Marital Communication Inventory를 김진희 (1998)가 번안, 수정한 것으로 원척도에서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와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는 부부에 대한 판별 능력이 높았던 20개 항목을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Bienvenu(1970)는 부부간 의사소통의 특성과 양상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측정방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MCI 척도에서 의사소통의 내용보다는 특성, 양상, 방식을 반영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Bienvenu(1970)의 척도는 부부간에 서로 듣고,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능력과 말하는 태도를 조사하고 부부가 건강한 의사소통을 하는지, 혹은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을 하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하였다. 각 문항은 언제나 그렇다(4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4점의 리커트형 척도로 부정적인 문항은 반대로 처리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신뢰도는 .86(Cronbach α =.86)으로 나타났다.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SPSS Window 10.02 를 사용하여 인구학적 특성 및 각 측정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등의 기초통계분석, 집단별 차이에 대한 분석, 측정된 구성개념의 하위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요인분석 및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측정변인들 간의 상호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Lisrel 8.0 Window 용을 사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사대상자의 특성

조사 대상자들의 나이는 평균이 47.79로 거의 50세 가깝다(최소나이 24 세이며 최대 나이는 64 세이다). 조사대상자의 학력은 고졸이 56명으로 전체의 26.9%를 차지하고, 전문대졸업이 16명으로 7.7%이다. 대학재학은 직장인이면서 야간대학에 다니는 남성들로 75명이었다. 대졸자와 대학원을 졸업한 남성들은 28명과 32명으로 13.5%와 15.4%를 차지한다. 조사 대상자의 학력에서 초등과 중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자의 경제수준에서 자신이 중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169명(81.2%)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상류층이라고 대답한 사람들이 27명으로 전체응답자의 13.5%를 차지했으며, 하류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11명으로 모두 5.3%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경제수준을 하류층이라고 응답했다.

종교가 없다고 응답한 남성들이 80명(38.5%)으로 가장 많았다. 기독교를 가진 남성들이 59명(28.4%)으로 두 번째로 많았으며, 불교를 가진 남성들은 40명(19.2%)으로 세 번째로 많았고, 천주교가 27명(13%)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특성에서 알 수 있듯이 연령에서는 젊은층이 부족하고, 학력도 초, 중등이 없으며, 경제수준에서도 하류층 남성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아내폭행의 빈도를 측정한 결과 가벼운 폭행에서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진 적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76명이며, 그 중에 '그런 적 많다'고 응답한 남성들이 6명이었다. 다음으로 아내를 세게 밀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들은 45명이며, 그중 '그런 적 많다'고 응답한 남성은 3명이었다. 손바닥으로 아내의 뺨을 때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23명의 남성들이 '그런 적 있다'고 응답했으며, 그중 3명은 그런 적 많다고 응답했다.

심각한 폭행에서 아내를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은 모두 13명이며 그중 2명은 '그런 적 많다'고 응답했다. 혁대나 몽둥이 골프채 같은 물건으로 아내를 때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들도 4명이었으며, 그중 한 명이 그런 적 많다고 응답했다. 아내를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고 응답한 남성들도 7명이나 되었다. 그중 한 명은 그런 적 많다고 응답했으며, 칼이나 가위,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했다고 응답한 남성들도 4명이나 되었다.

표 1. 아내폭행 빈도

구 분	폭행 1	폭행 2	폭행 3	폭행 4	폭행 5	폭행 6	폭행 7
전혀그런적없다	83(39.9)	96(46.2)	126(60.6)	140(67.3)	157(75.5)	167(80.3)	173(83.2)
그런적 없다	35(16.8)	39(18.8)	39(18.8)	40(19.2)	39(18.8)	26(12.5)	25(12.0)
모르겠다	13(6.3)	27(13.0)	19(9.1)	13(6.3)	7(3.4)	6(2.9)	4(1.9)
그런적 있다	70(33.7)	42(20.2)	20(9.6)	11(5.3)	3(1.4)	6(2.9)	4(1.9)
그런적 많다	6(2.9)	3(1.4)	3(1.4)	2(1.0)	1(.5)	1(.5)	
무응답	1(.5)	1(.5)	1(.5)	2(1.0)	1(.5)	2(1.0)	2(1.0)
합 계	208(100)	208(100)	208(100)	208(100)	208(100)	208(100)	208(100)

주) 폭행 1: 물건을 집어 던졌다, 폭행 2: 세게 밀쳤다, 폭행 3: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다, 폭행 4: 발로 차거나 주먹으로 때린다, 폭행 5: 물건(혁명, 몽둥이, 골프채 등)으로 때렸다, 폭행 6: 사정없이 마구 때렸다, 폭행 7: 칼(가위)이나 총으로 위협하거나 다치게 하였다

원가족 폭력경험은 성장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거나 밀치거나, 물건을 던지는 모습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를 한 문항으로 질문했는데, 208명 중 69(33.2%)명의 남성들은 그런 행동을 목격한 적이 있다고 했으며, 그중 13명은 자주 목격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2. 원가족 폭력경험

구 분	빈도(%)
전혀 본적 없다	73(35.1)
본적 없다	46(22.1)
모르겠다	18(8.7)
본적 있다	56(26.9)
본적 많다	13(6.3)
무응답	2(1.0)
합 계	208(100)

변인들의 평균과 표준편차

변인들의 평균은 대체로 높지 않았다. 총점으로 계산된 자존감이 36.38이며 역시 총점으로 표기되는 남녀평등의식이 212.38이고,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2.78, 공격성은 2.62, 원가족 폭력경험은 2.47, 스트레스는 .74로 나타났다.

표 3. 변인들의 평균 및 표준편차

구 분	평균 (표준편차)
의사소통	2.78 (.39)
자 존 감	36.38 (5.60)
공 격 성	2.62 (.59)
남녀평등	212.38 (22.66)
스트레스	.74 (.56)
원가족 폭력경험	2.47 (1.37)

변인들간의 상관

각 변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령과 여타 변인간의 상관을 보면 연령과 부부간 의사소통, 남녀평등의식, 아내폭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교육수준은 자존감과 공격성, 스트레스, 아내폭행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과 공격성, 스트레스, 아내폭행은 부적상관관계를 가졌다. 경제수준은 부부간 의사소통, 자존감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인다. 인구학적 변인에서는 연령과 교육수준이 아내폭행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 관계적 측면에서는, 부부간 의사소통 효율성은 공격성, 스트레스와 높은 부적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존감과 의사소통 효율성간에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다

남녀평등의식은 연령 및 자존감, 공격성, 스트레스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연령과는 부적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내폭행과는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자존감과 공격성 사이에도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자존감은 남편의 스트레스와도 상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의 공격성은 아내폭행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4. 전체 변인들간의 상관관계

구 분	1	2	3	5	6	7	8	9	10	11
1.나이	1.000									
2.교육	-.115	1.000								
3.경제	.132	.265**	1.000							
5.의사소통	-.161*	.123	.191**	1.000						
6.남녀평등	-.154*	.140	-.027	.260**	1.000					
7.자존감	.014	.261**	.174*	.506**	.158*	1.000				
8.공격성	.014	-.201**	.008	-.389**	-.333**	-.425**	1.000			
9.스트레스	.048	-.147*	-.057	-.389**	-.301**	-.424**	.478**	1.000		
10.폭력경험	-.008	-.046	-.108	-.129	.016	-.075	.119	.078	1.000	
11.아내폭행	.165*	-.150*	.001	-.393**	-.131	-.163*	.397**	.211**	.206**	1.000

* $p < .05$, ** $p < .01$

비폭행 집단과 경미한 폭행, 심각한 폭행 집단간의 차이 분석

비폭행집단과 가벼운 폭행집단, 심각한 폭행집단간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Straus(1979)의 갈등척락 척도(Conflict Tactics Scale)의 문항 1부터 문항 3까지(표 1의 주 참조)에서 한 문항이라도 '그런적이 있다'거나 '그런적 많다'라고 응답한 남성들을 경미한 폭행집단으로 분류하고, 문항 4부터 문항 7까지(표 1의 주 참조) 중에서 한 문항이라도 '그런적 있다'거나 '그런적 많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심각한 폭행집단으로 분류 하였다(김재엽, 이서원, 1998). 심각한 폭행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남성들은 모두 13명이었다. 비폭행집단의 남성들과 경미한 폭행집단의 남성들 중에서 이들과 연령, 경제수준, 교육수준이 비슷한 13명을 집단별로 선정, 세 집단간 차이를 분석했다.

사후검증결과 집단간 차이가 유의미한 변인은 없었으나 비폭행집단과 심각한 폭행집단, 경미한 폭행집단의 특성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다. 특이한 점은 남녀평등 의식이나 자존감에서 경미한 폭행집단의 남성들보다 오히려 심각한 폭행집단 남성들의 평균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스트레스에 있어서도 경미한 폭행집단의 남성들이 심각한 폭행집단의 남성들보다 조금 높은 평균을 보이고 있다. 비폭행집단은 두 폭행집단보다 스트레스도 덜 받고,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도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부간 의사소통의 효율성은 비폭행집단보다 경미한 폭행집단이 경미한 폭행집단보다 심각한 폭행집단이 더 낮은 평균을 보이고 있었다. 공격성과 원가족 폭력경험에서도 비폭행집단보다는 경미한 폭행집단의 평균이 더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경미한 폭행집단과 심각한 폭행집단간에도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소수를 대상으로 한 결과이므로 일반화에는 무리가 있으나 심각한 폭행 집단이 경미한 폭행집단보다 반드시 스트레스를 많이 느낀다거나,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이 낮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격성과 원가족 폭력경험은 비록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지만 폭력의 수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아내를 폭행하는 남성들의 중요한 특성으로 짐작된다

표 5. 폭행경험집단의 변인별 평균

구 분	비폭행	경 미 한 폭 행	심 각 한 폭 행
의사소통	2.82(.49)	2.61(.30)	2.59(.21)
남녀평등	2.68(.26)	2.63(.36)	2.64(.21)
자존감	3.70(.47)	3.33(.71)	3.65(.59)
공격성	2.50(.45)	2.85(.51)	3.07(.74)
스트레스	.54(.38)	.88(.68)	.81(.68)
원가족 폭력경험	1.82(1.40)	2.73(1.68)	3.09(1.04)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 분석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경로를 다음과 같이 가정하였다. 부부간의 관계에 영향을 주는 남성의 심리적 특성은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남편의 낮은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은 부부간에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야기하고 이는 남편의 공격성을 통해, 아내폭행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변인으로 스트레스를 들 수 있다. 가정과 직장, 환경과 인간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높고,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지각하는 남편들은 아내와 원만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게 되고, 이는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해서 아내폭행을 야기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아내폭행에 영향을 주는 개인 역사적 변인은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다. 이는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장면을 얼마나 자주 목격했는가하는 것으로 원가족에서의 폭력경험이 높은 남편일수록 아내에게도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연구문제의 그림 1은 위의 가정을 모두 포함하는 연구모델이고, 그림 2는 스트레스가 의사소통을 통해 공격성으로 가는 경로가 생략된 경쟁모델이다. 표 10의 상관행렬을 이용하여, ML(Maximum Likelihood) 방식으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도(goodness of fit)를 판단하기 위해 χ^2 , RMSEA, RMR, GFI, NFI, CFI, AGFI를 준거로 삼았다(Bentler, 1990).

KC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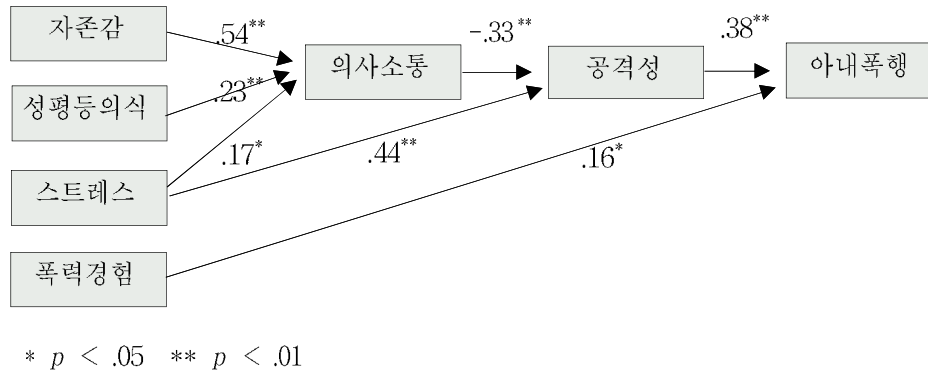


그림 4.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연구모델

표 6. 연구모델의 부합도 계수

	χ^2	df	p	RMSEA	GFI	NFI	CFI	AGFI
부합도	35.592	8	.00	.00	.95	.88	.90	.84

연구모델과 경쟁모델의 전반적인 부합도 지수는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모델의 GFI, NFI, CFI, AGFI가 모두 .8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나타났는데 .80 이상이면 ‘수용할만한 모델’이라 할 수 있고, .90 이상이면 ‘양호한 모델’로 평가되며 .95 이상이면 자료를 잘 반영하는 매우 좋은 모델이라 할 수 있는데, 연구모델의 GFI는 .95로 이 모델이 매우 좋은 모델임을 알 수 있다.

* $p < .05$ ** $p < .01$

K C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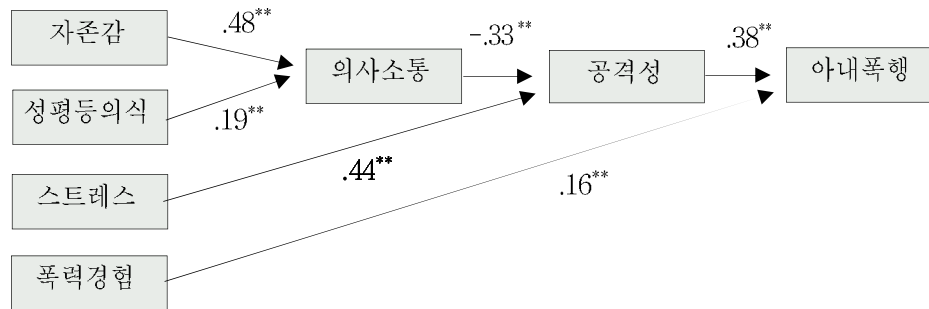


그림 5.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경로(경쟁모델)

표 7. 경쟁모델의 부합도 계수

	χ^2	df	p	RMSEA	GFI	NFI	CFI	AGFI
부합도	42.010	9	.00	.00	.95	.86	.88	.84

또한 모델의 부합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RMSEA의 수치가 .05보다 작을 경우 부합도에 근접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08보다 클 경우 모집단 추정에서의 오차를 반영하는 것인데, 두 모델 모두 .05보다 낮게 나타나 모집단 추정에서의 오차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반적인 부합도들은 수용할만한 모델이나 양호한 모델, 좋은 모델로 나왔으므로 모델이 자료를 잘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모델은 위계적 관계로 연구모델이 경쟁모델보다 큰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모델 중에 어느 쪽이 더 우월한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는 작은 모델에서 큰 모델의 자유도와 카이제곱을 뺀 수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한다. 모델끼리의 자유도의 차이와 카이제곱의 차이가 유의미하다면 두 모델은 서로 다른 모델이므로, 큰 모델(연구모델)이 채택된다. 그러나 그 차이가 무의미하다면 두 모델은 동일한 모델로 볼 수 있고, 이때는 절약의 법칙에 의해 작은 모델(경쟁모델)이 채택된다(박광배, 2000). 연구모델의 χ^2 은 35.592(df = 8)(p = 0.00)이며, 경쟁모델의 χ^2 은 42.010(df = 9)(p = .00)로 두 모델의 자유도와 카이제곱의 차는 각각 1(df), 6.518(χ^2)로 나타났다. 카이제곱 6.518은 자유도 1에서 유의미하다. 따라서 두 모델은 동일하지 않은 모델로, 연구모델이 채택되고 경쟁모델이 가지지 않은 스트레스가 의사소통을 통해 공격성으로 가는 추가경로가 아내폭행을 설명하는데 있어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남편의 공격성격을 활성화해서 아내폭행이 일어나기도 하지만, 스트레스는 부부관계에 영향을 주고, 공격성은 부부관계에 영향을 받아 아내폭행이 야기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모델에서 보면 의사소통에 가장 중요한 변인은 자존감으로 γ (Gamma)값이 .54($t = 8.42$)로 나타났다. 스트레스와 남녀평등 인식의 γ 값은 각각, .17($t = 2.53$), .23($t = 3.68$)으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부부관계의

질을 기능할 수 있는 의사소통의 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특성은 자아존중감이라고 할 수 있다. 스트레스가 공격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gamma = .44, t = 7.56$)은 자존감, 남녀평등의식 및 스트레스의 영향을 받는 의사소통의 질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beta(\text{Beta}) = -.33, t = -5.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공격성은 아내폭행($\beta = .38(t = 6.00)$)에 영향을 준다. 원가족 폭행경험의 아내폭행에 대한 γ 값은 $.16(t = 2.54)$ 로 나타났다.

연구모델에서 연구자가 설정한 경로가 아닌 간접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의 공격성에 대한 영향은 $-.18(t = -4.76)$ 로 나타났으며, 자존감이 아내폭행에 미치는 영향은 $-.06(t = -3.72)$ 로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의 공격성과 아내폭행에 대한 영향력은 각각 $-.08(t = -3.11)$ 과 $-.03(t = -2.75)$ 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아내폭행에 미치는 영향은 $.14(t = 4.20)$ 로 나타났다. 또한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아내에게 미치는 영향력도 $-.13(t = -4.15)$ 으로 나타났다. 경쟁모델에서의 간접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존감이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는 $-.16(t = -4.60)$ 으로 나타났고, 아내폭행에 미치는 영향력은 $-.06(t = -3.66)$ 으로 나타났다. 남녀평등의식의 공격성과 아내폭행에 대한 영향력은 각각 $-.06(t = -2.70)$ 과 $-.02(t = 2.47)$ 로 나타났다. 스트레스가 아내폭행에 미치는 영향은 $.16(t = 4.68)$ 으로 나타났으며, 부부간의 의사소통은 아내폭행에 대해 $-.13(t = -4.13)$ 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원가족 폭력경험은 아내폭행으로 어떤 간접효과도 가지지 않았다.

논의 및 결론

지금까지 아내폭행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그간 아내폭행에 관한 연구들이 그 원인을 단일한 차원으로 설명하려 했기 때문에 실제적인 현상을 잘 드러내지 못했다고 보고, 이를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설명하고자 했다. 즉 아내폭행의 원인을 부부 관계적 차원, 개인성격적 차원, 상황적 차원의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각각의 차원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변인들이 어떻게 서로 관련성을 가지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아내폭행이 유발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208명의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본조사에서 30%가 넘는 남성들이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13명의 남성들은 흥기를 사용하거나, 사정없이 두들겨 패는 등의 심각한 폭행을 행사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므로 응답의 진정성 여부를 고려한다면 실제 폭행남편의 수는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조사 대상자들이 법적인 제재나 상담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의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상담을 받거나 아내폭행으로 구속된 남성들만을 표집으로 한 연구가 아니므로, 일반 한국가정에서 아내폭행은 빈번하고 심각하게 행사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비폭행집단과 경미한 폭행집단, 심각한 폭행집단간의 차이검증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는 변인은 없었으나, 공격성과 원가족 폭력경험은 폭행수위에 따라 차이를 보였고, 특히 심각한 폭행집단이 두집단에 비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자존감과 스트레스, 남녀평등의식은 폭력수위에 따라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폭행경험이 있는 두 집단이 비폭행 집단에 비해 자존감과 남녀평등의식이 낮고, 스트레스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근소한 차이지만 심각한 폭행집단이 오히려 경미한 폭행집단보다 오히려 자존감이 나 남녀평등의식이 높고 스트레스가 낮아, 아내를 심각하게 폭행하는 남성들의 정신병적 경향성이나 이상성격에 대한 기존 주장들은 본 연구결과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간에 다음과 같은 경로를 가정해 보았다. 남편의 낮은 자존감, 낮은 남녀평등 의식, 높은 스트레스는 부부간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은 남편의 공격성을 자극하고, 이는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남편의 스트레스는 직접적으로도 남편의 공격성격을 활성화시켜,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편의 원가족 폭력경험은 아내폭행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다.

위의 가설을 모두 포함한 연구모델과 스트레스가 의사소통으로 가는 경로를 제거한 경쟁모델의 비교를 통해 어느 모델을 채택해야 할지를 알아보았다. 비교결과 연구모델이 자료를 더 잘 반영하는 모델로 채택되었다. 즉 아내폭행은 남편의 낮은 자존감, 낮은 남녀평등의식, 높은 스트레스가 부부간의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남편의 공격성을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남편의 공격성에 의해 아내폭행이 영향받는다는 것이 검증되었으며, 또한 남편의 높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공격성에 영향을 주고, 남편의 공격성은 다시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남편의 원가족 폭력경험이 바로 폭행으로 가는 경로도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결과는 부부의 관계성과 가해자인 남편의 성격특질, 상황적 요인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아내폭행이 일어나는 관계성을 검증한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많은 연구자들이 폭행남편들이 공격적인 성격의 소유자라거나, 결혼생활의 불만족, 혹은 남편의 사회, 경제적 스트레스가 아내폭행의 원인이라는 점을 지적했으나, 이론적 배경에서도 언급한 바, 이러한 하나의 원인만으로 아내폭행을 설명하는 것은 현상을 지극히 단순화시킴으로서 아내폭행이 일어나는 상황을 이해하고 예방하는데 적절치 못할 수 있다. 결과를 통해 도출된 연구모델에서 알 수 있듯이 아내폭행의 경로는 매우 다양하고, 폭행의 원인도 복잡적이다. 즉, 남편의 자존감과 낮은 성평등의식은 부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주고, 부부의 의사소통은 다시 남편의 공격성에 영향을 주며, 이러한 변인들로부터 영향받은 남편의 공격성이 직접적으로 아내폭행에 영향을 준다. 기존 연구에서 남편의 공격성은 아내폭행에 있어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변인이었다. 여기서도 남편의 공격성은 아내폭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나, 본 연구모델의 경로가 입증하는 바는 남편의 공격적인 성격이 부부관계에 의해 영향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이러한 부부관계도 또한 남편의 내적특성이나, 상황에 의해 영향 받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결국, 아내폭행은 남편의 성격, 부부관계 등의 다양한 변인이 의해 영향받는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두 번째 의의는 스트레스가 어떻게 아내폭행을 유발하는가의 경로를 입증한 것이다. 남편의 스트레스는 부부의 의사소통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간의 의사소통이 다시 남편의 공격성을 통해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와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남편의 공격성격에 영향을 미치고, 남편의 공격성격이 다시 아내폭행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경로가 입증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많은 연구자들이 스트레스가 아내폭행과 가지는 관련성을 지적했으나, 경제적 스트레스나 생활에서 느끼는 스트레스가 아내폭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고,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남편들이 본래 지니고 있는 공격적인 성향이나 부부간 의사소통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마지막으로 원가족 폭력경험이 아내폭행으로 가는 직접적인 경로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관찰학습의 결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다. 원가족에서 부모의 폭력을 관찰한 남성들은 어떤 다른 변인들의 개입 없이도 아내를 폭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원가족 폭력경험은 어떤 간접효과도 가지지 않았으며 오직 아내폭행에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이는 아내폭행이 학습되고, 세습된다는 것을 다

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것으로, 아내폭행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를 확인시켜 준다.

이와 같은 본 연구결과가 가지는 시사점은 아내폭행에 대해 가해남편과 아내, 양자를 모두 다룰 수 있는 개입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즉 모든 종류의 아내폭행에 대해 남편을 처벌하거나 부부가 이혼해야 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은 아니므로, 아내폭행의 유발경로와 폭행의 심각성에 따라, 남편들 각자의 심리적 특성, 부부관계 등을 살펴서, 아내폭행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개입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는 아내폭행에 대하여 우리사회가, 남편에 대한 처벌 뿐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교육, 부부관계의 회복과 나아가 건강한 가정 유지를 위해서 가정의 사회-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할 수 있는 포괄적인 자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즉 아내폭행을 해결하기 위해 부부의 의사소통 훈련이나 남편의 의식교육 등 하나의 방법에만을 사용하기보다는 실직 가정의 직업훈련이나, 부부관계회복 프로그램, 폭행남편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교육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함으로써 보다 근본적으로 아내폭행을 근절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할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김갑숙(1991). 부부갈등이 부부폭력과 자녀학대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양희, 정경아(2000). 한국형 남녀평등의식검사 개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3-44.
- 김재엽(1998). 한국인의 스트레스와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2), 115-139.
- 김재엽, 이서원(1998). 저소득층의 아내구타 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가족과 문화, 10(1), 107-133.
- 김재엽, 최선희(1998). 청소년 스트레스가 폭력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논집, 29, 181-204.
- 김정옥, 전형미, 이현혜(1992). 자아존중감, 부부간 의사소통 및 결합력이 아내학대에 미치는 영향. 여성문제 연구, 21-44.
- 김진희(1998). 부부의 의사소통효율성과 스트레스 인지수준.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노치영, 박성연(1992). 가족폭력의 세대간 전이에 관한 연구: 부모의 폭력행동과 아동의 공격성 연구. 대한 가정학회지, 30(4), 219-230.
- 박경규(1994). 기혼남성의 스트레스와 폭력 교우관계 분석. 효성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박광배(2000). 다변량분석. 서울: 학지사.
- 안미영(1998). 대인간 오해에서 자존감의 수준과 자기평가기준의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2(1), 117-135.
- 옥선화(1992). 도시저소득층의 가족문제. 서울: 하우. 한국가족학회 편.
- 옥선화, 정민자(1984). 가족스트레스와 사회 심리적 가족자원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1), 79-92.
- 이성우(2000). 공격성이 동통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정은, 이영호(2000). 개인특성, 스트레스 및 부부간의 의사소통과 결혼만족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9(3), 531-548.
- 이종목, 이은희(1997). 직무 스트레스와 조직행동간의 인과적 관계모형 검증연구: 계약 영업직 근로자들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1), 127-156.
- 전병재(1974). 자아개념 측정 가능성에 관한 연구. 연세논총, 11, 107-130.

전춘애(1989). 사회계층에 따른 부부의 권력과 폭력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27(3), 133-146.

정희진(2001).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서울: 도서출판 또 하나의 문화.

최상진, 김기범(1999). 한국인의 self의 특성: 서구의 self 개념과 대비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3(2), 279-295.

최상진, 이장주(1999). 친밀 대인관계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자아관여적 정서: 무시(無視). *한국심리학회 연차대회 학술발표초록집*, 68-71.

한겨레 21, 2003년 2월 20일 제446호 커버 스토리 ‘나도 아내를 때렸다’.

- Ali, A., & Toner, B. B. (2001). Self-esteem as a predictor of attitudes toward wife abuse among muslim women and men in Canada.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41(1), 23-30.
- Barnett, O. W., & Fagan, R. W. (1993). Alcohol use in male spouse abusers and their female partn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6, 217-241.
- Bartol, C. R. (2002). *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Upper Saddle River New Jersey: Prectice Hall.
- Bellavial, G., & Murray, S. (2003). Did I do that? self-esteem-related differences in reactions to romantic partners' moods. *Personal Relationships*, 10(1), 77-95.
- Bentler, P. M. (1990). Comparative fit indexes in structural models. *Psychological Bulletin*, 107(2), 238-246.
- Bentler, P. M., Bonett, D. G. (1980). Significance tests and goodness of fit in the analysis of covariance structures. *Psychological Bulletin*, 88(3), 588-606.
- Bienvenu, Sr. M. J. (1970). Measurement of marital communication. *The Family Coordinator*, 26-31.
- Broverman, I., Vogel, S., Broverman, D., Clarkson, F., & Rosenkrantz, P. (1972). Sex-role stereotype: A current appraisal. *Journal of Social Issues*, 28(2), 59-78.
- Bushman, B. (1995). Moderating role of trait aggressiveness in the effects of violent media on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5), 950-960.
-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3), 452-459.
- Cano, A., & Vivian, D. (2001). Life stress and violent behavior. *Aggression and Violent Behavior*, 6, 459-480.
- Cascardi, M., & Vivian, D. (1995). Context for specific episodes of marital violence: gender and severity of violence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0, 265-293.
- Cordova, J. V., Jacobson, N. S., Gottman, J. M., Rushe, R., & Cox, G. (1993). Negative reciprocity and communication in couples with a violent husband.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2(4), 559-564.
- Dibble, U. G., & Straus, M. A. (1990). Some social structures determinants of inconsistency between attitude and behavior: The case of family viol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 42(February), 71-80.
- Everett, A. (1988). The role of personality in violent relationship. In Russell, G. W.(Ed.), *Violence in intimate relationship*. New York: Pma Publishing Corp.
- Farrington, K. (1986). The application of stress theory to the study of family violence: principles, problems, and prospect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 131-147.
- Gil, D. C. (1971). Violence against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3, 637-648.
- Goldstein, J. H. (1986). Aggression and crimes of viol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7, 332-354.
- Goldstein, J. H., & Rosenbaum, A. (1985). An evaluation of the self-esteem of marital violence men. *Family Relations*, 34, 425-428.
- Gondolf, E. W. (1988). Who are those guys? Toward a behavioral typology of men who batter. *Violence and Victims*, 3, 187-203
- Gondolf, E. W., & White, R. J. (2001). Batterer program participants who repeatedly reassault.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6(4), 361-380.
- Haj-Yahia, M. M. (2001). The incident of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and some of its psychological consequences among Arab adolescent. *Child Abuse & Neglect*, 25, 885-907.
- Hamberger, L. K., Lohr, J. M., Bonge, D., Tolin, D. F. (1997). An empirical classification of motivation for domestic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an*, 3(4), 401-423.
- Hotaling, G. T., & Sugarman, D. B. (1986). An analysis of risk markers in husband to wife violence: The current state of knowledge. *Violence and Victims*, 1, 101-124.
- Huesmann, I. R., Eron, L. D., Lefwitz, M. M., & Walder, L. O. (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Infante, D. A., Chandler, T. A., & Rudd, J. E. (1989). Test of an argumentative skill deficiency model of interpersonal violence. *Communication Monograph*, 56, 163-177.
- Jasinski, J. L., Asdigian, N. L., Kantor, G. K. (1997). Ethnic adaptations to occupational strai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2(6), pp 814-831.
- Julian, T. W., & McKenry, P. (1993). Mediators of husband-to-wife violence toward female intimate. *Journal of Family Violence* 8, 39-56
- Kalmuss, D. (1984).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marital aggress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6(2), 82-91.
- Kanner, A. D., Coyne, J. C., Schaefer, C., & Lazarus, R. S. (1981). Comparison of two model of stress management: Daily hassles and uplifts versus major life events.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4, 1-39.
- Kaplan, D. (1995).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Thousand Oaks: Sage.
- Kinney, T., & Segrin, C. (1998). Cognitive moderators of negative reactions to verbal aggression. *Communication Studies*, 49, 49-72.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McGraw-Hill.
- Littlejohn, S. W. (1996). *Theories of human communication*. Belmont: Wadsworth Publishing Company.
- MacEwen, K. E., & Barling, J. (1988). Multiple stressor, violence in the family of origin, and marital aggression: A longitudinal investigation. *Journal of Family Violence*, 3, 73-87.
- Maiuro, R. D., Vitaliano, P. P., & Cahn, T. S. (1987). A brief measure for the assessment of anger and aggression.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2, 166-178.
- Marsh, H. W., Balla, J. R., & McDonald, R. P. (1988). Goodness-of-fit indexes in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The effects of sample size. *Psychological Bulletin*, 103(3), 391-410.
- Mischel, W., Shoda, Y. (1998). Reconciling processing dynamics and personality disposition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9, 229-258.
- Parkinson, B. (2001). Anger on the off the road. *British Journal of Psychology*, 92, 507-526.
- Riggio, R. E., Throckmorton, B., & Depaola, S. (1990). Social skill and self-esteem.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11(8), 799-804.
- Rohling, J. L., Smutzler, N., & Vivian, D. (1994). Positivity in marriage: The role of discord and physical aggression against wiv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56(1), 69-79.
- Rosenbaum, A., & O'Leary, K. D. (1981). Marital violence: Characteristic of abusive couple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9, 63-7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Schooler, C., Schoenbach, C., & Rosenberg, F. (1995). Global self-esteem and specific self-esteem: different concepts, different outcom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0(1), 141-156.
- Rouse, L. P. (1989). Reply to Hamberger and Arnold.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4, 523-527.
- Schweinle, W. E., Ickes, W., & Bernstein, I. H. (2002). Emphatic inaccuracy in husband to wife aggression: The overattribution bias. *Personal Relationships*, 9(2), 141-158.
- Shoda, Y., Mischel, W., & Wright, J. C. (1994). Intra-individual stability in the organization and patterning of behavior: incorporating psychological situation into the idiographic analysis of personal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7(4), 674-687.
- Sigall, H., & Gould, R. (1977). The effect of self-esteem and evaluator demandingness on effort expendit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11), 23-45.
- Stemmler, G. (1997). Selective activation of traits: boundary conditions for the activation of ang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22(2), 213-233.
- Stets, J., & Pirog-Good, M. (1990). Interpersonal control and courtship aggression.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s*, 7(2), 371-394.
- Stith, S. M., & Farley, S. C. (1993). A predictive Model of male spousal violence. *Journal of Family Violence*, 8, 183-201.
- Stith, S. M., Rosen, K. H., Middleton, , K. A., Busch, A. L., Lundeberg, K., & Carlton, R. P. (2000). The intergenerational transmission of spouse abuse: A meta-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 Family*, 62, 640-654.
- Straus, M. A. (1979). Measuring intrafamily conflict and violence: The conflict tactics(CT) scal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1, 75-88.
- Straus, M. A. (1980). Social stress and marital violence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y. *Annual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 347, 119-150.
- Straus M. A. & Gelles, R. J.(1990). *Psychological violence in american families: Risk factors and adaptations to violence in 8,145 families (Appendix B)*.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 Tontodonato, P., & Crew, B. K. (1992). Dating violence, social learning theory, and gender: A multivariate analysis. *Violence and Victims*, 7, 3-14.
- Vivian, D., & O'Leary, K. D. (1987). Communication pattern in physically aggressive engaged couples. Paper presented at the Third National Family Violence Research Conference, University of New Hampshire.
- Wallace, H., & Seymour, A. (2001). Domestic violence. In G. Coleman, M. Gaboury, M. Murray, & A. Seymour(Eds.), *1999 National Victim Assistance Academy*. Washington, D. C.: U. S. Department of justice.
- Whitehurst, R. N. (1974). *Violence in husband-wife interaction*. NY: Harper & Row.
- Yoshioka, M. R., Dinola, J., & Ullah, K. (2001). Attitude toward marital violence. *Violence against Women*, 7(8), 900-926.
- Zlotnick, C., Kohn, R., Peterson, J., & Pearlstein, T. (1998). Partner physical victimization in a national sample of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1), 156-166.

Why Does Wife-Assault Occur?: An Integrated Model Study for Influences of Social and Psychological Factors on Wife-Assault of Husband

Ji-Young Kim & Sang-Chin Choi

Department of Psychology, Chung-Ang University

Recently, the family violence has been issued in Korean society. In particular, wife-assault, i.e., the violent behaviors of husbands to wives in which influenced on physical and psychological problems of women,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been neglected by Korean patriarchy. The objective of the present paper is to integrate research from a variety of disciplines, including sociology, psychology, and women studies and present a multilevel analysis that analyzes the dynamic interplay between individual and interpersonal factors, and situational factors in wife-assault. According to past researchers, wife-assaulter had high aggression, high stress situation, low self-esteem, low gender-egalitarianism, and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in the growing. In addition, the efficiency of the inter-spouse communication was important variable. The results revealed that low self-esteem, and low gender-egalitarianism had relation to low efficiency of marital communication. Then, this communication influenced on husband' aggression. These relationships leaded to wife assault. Stress influenced on wife-assault via aggression Also, stress influenced on wife-assault via marital communication and aggression.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had direct relations with wife-assault. The result of this study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a various variables such as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husband, situational factors around the marital can influence simultaneously on bad marital relationship. Secondly, more worse marital relationship and stressful situations around husband, more activate husband's aggression. Thirdly, husband's aggression that is evoked by various antecedents can cause to lead his violent behavior to wife. Finally, an experience of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can have direct relation to wife-assault.

Key words: wife-assault, self-esteem, gender-egalitarianism, stress, witnessing inter-parental violence, marital communication, aggression